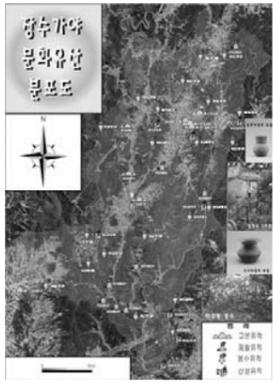


장수군, 가야문화 관광자원화

올해 6억5천만원 투입 고대산성 발굴조사 등



장수군이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관광자원 육성을 위한 가야문화유산 관광자원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수가야 유적정비 정비사업은 2020년까지 15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군은 지난해 말 장수군 가야문화유산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시작하였으며, 6.5억원의 예산을 들여 제철유적 및 고대산성 발굴조사·가야고분 분포조사·출토유물 특별전시·홍보 및 교육을 위한 문화재 지역 주민공감정책사업·가야문화유

산 학술대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야유

적공원, 산책로, 전사관,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고 고분군복원, 가야고분군 발굴조사 등을 추진, 발굴조사에 따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가야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가야문화권 시군협의회(16개 시군·5개 광역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 '가야문화권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2016년을 '1500년 동안 잠들어있던 장수군의 가야문화유산을 깨우는 해'로 정하고 선조들이 일궈온 가야문화유산이 빛날 수 있도록 가야문화유산의 존재성을 학술적으로 입증하고 알리는데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우리콩으로 짜낸 두유 직매장에서 맛보세요

완주군 소이푸드사업단 무첨가물 전두유 출시

완주군이 국산 콩을 이용해 개발한 두유를 지난 24일 본격 출시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판매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출시된 두유는 콩을 곱질째 통째로 갈아 넣은 전두유 방식으로 제조된 제품으로 콩의 영양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된 곱질과 배아를 다량 함유하고 있고 멸균이 아닌 살균 방식으로 만들어 영양 성분이 살아 있고 신선한 제품으로 무료 시음회에 참석 한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전두유 원료는 '진양콩'과 '개척1호' 품종을 사용하였는데 콩 특유의 비린내가 없고 소화가 잘되는 콩으로 특허를 받은 콩이다.

이번 전두유 제품은 무 첨가물, 무

설탕 제품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소비자 계층, 아침식사 대용식을 찾는 소비자들과 미용과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20~30대 젊은 여성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180ml 병과 파우치 제품의 가격이 각각 1,800원, 개척1호 두유 2,000원이다.

효자콩, 모약산, 하가, 삼천동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구입 가능하며 지역 내 직매장으로 판매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단맛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 생강과 블루베리 농축액 등을 첨가한 두유도 곧 출시할 예정이며, 두유 홍보를 위해 7월중 완주군 로컬푸드 직매장(위 4개소)에서 두유시음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SNS를 통한 체험단도 모집할



예정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소이푸드사업단' (1670-2626 홍보팀)에 신청하면 된다.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김중욱 소장은 "두유 이외에도 다양한 가공품 개발 상품화로 콩 재배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조용하고 내실있는 민선6기 2주년 기념

행사 대신 정책포럼 개최

박성일 완주군수가 조용하면서도 내실있는 민선6기 하반기 군정 행거기에 나섰다.

박성일 군수는 4일 별도의 민선6기 2주년 기념식 없이,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으로 민선6기 하반기에 돌입했다.

박 군수는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많은 주민들이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 덕분에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후반기에도 군정의 최상의 가치는 '주민행복'인 만큼,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그리고 소신껏 일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지난 시간보다 더 열심히 일할 각오"라고 밝혔다.

이어 박 군수는 "다른 자치단체처럼 기념식이나 기자회견회를 통해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전에 앞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조용

하면서 내실있게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당초 완주군은 민선6기 2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박 군수의 지론에 따라 지난달 29일 '2016 완주비전 정책포럼'을 통해 민선6기 후반기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박 군수는 이번 페이스북을 활용,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를 주민에게 전했다.

박 군수는 "완주군수에 취임한지도 어느덧 2년이 흘렀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바라보고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고 으뜸기는 완주를 만들어가겠다"고 표명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군,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

무주군은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행복 홀씨 입양사업(민들레 홀씨처럼 행복이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하는 활동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깨끗한 거리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관내 각 기관 및 단체, 개인이 6개 읍면의 공원과 유원지, 명소, 하천 등 일정 구간을 담당 구역으로 정해 매달 정기적으로(매월 1회 이상) 청소(생활쓰레기, 영농폐기물 수거)와 경관정비를 위한 꽃가꾸기 등을 진행한다. (종량제 봉

투와 청소도구 등은 군에서 지원) 현재까지 무주군 무주읍 서면마을청년회 등 마을단체와 (주)무주대우산리조트 등 관내 기업, 새마을운동무주군지회 등 시민단체 등 14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군은 참여 기관 및 단체, 개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와 지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 환경산림과 자원순환 담당 김광영은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통해 지역민들의 애정심이 더욱 커지고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

깨끗한 거리·마을 만들기 일환 담당구역 청소·꽃가꾸기 등 진행

비도 더욱 내실이 기해지기를 바란다"며 "깨끗한 무주를 꾸리고 태권도 성지 무주의 명성을 키워나가는 데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군은 참여의사를 밝힌 기관·단체들과 행복홀씨 입양사업 활동과 역할 등에 대해 공유했으며 앞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을 대상지로 정하고 활동 참여자들을 늘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 둔산공원 어린이 야외수영장 22일 개장

전북 완주군이 붐몰을 둔산공원에 어린이들이 마음껏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야외 수영장이 오는 22일 개장한다.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오는 7월 22일부터 8월30일까지 운영되는 야외수영장은 400㎡ 규모로, 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영장 시설과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예전 야외농구장을 리모델링해 만든 수영장은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신장 120cm이하 어린이가 이용 가능하도록 지어졌다. 특히, 올해는 수영장 미끄럼틀 시설을 보강해 아이들이 맘껏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다만 7세 미만의 어린이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고, 반드시 수영복과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3명을 배치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수준의 물을 제공하는 등 도내 최고의 수준의 어린이 수영장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용료는 무료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정기 휴장일은 매주 월요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운영팀(063-290-3347)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군의회 하반기 의장단 구성

의장 유승열·부의장 이해양 의원 선출



유승열 의장



이해양 부의장

무주군의회는 하반기 제7대 무주군 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단을 구성하기 위해 7월 4일 본회의장에서 제249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선거는 교차선출 방식으로 치러진 하반기 의장에 유승열 의원(53, 가산거구), 부의장은 이해양 의원(49, 비례대표)이 선출 됐다.

상임위원회, 행정복지위원장에 이대석 의원(58, 나산거구), 산업건설위원장, 김준환 의원(63, 나산거구)이 전반기에 이어 연임됐다. 부위원장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이해연 의원(52, 가산거구),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성수 의원(50, 나산거구)이 선출되면서 하반기 원 구성이 되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의회 하반기 의정 설계 '지방자치 선도 강한 의회' 실현

제7대 무주군의회는 7월 4일 선출된 유승열 의장과 이해양 부의장을 중심으로 하반기를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후반기 의회는 참 민주주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강연회의 위상이 확립돼야 함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강연회의'를 의정지표로 삼았고, 앞으로 하반기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다.

-첫째,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실현

전반기 의회에서부터 군민들께 친근한 이웃처럼 다가가기 위해 매일 1명의 의원이 상주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열린 민원상담실'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군민 고충 및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 하고 집행부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를 통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의회 실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속으로 직접 들어가 우리 군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역사(易地應之)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둘째, 발로 뛰는 현장위주 의정 활동

지역현안 문제점 해결을 위한 주요 사업장과 관광지 시설, 그리고 재해위험지역의 현장시찰 등 꼼꼼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수시로 보완·정비함에 있어, 우선 군민의 생각과 비전이 실천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장을 내실 있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의회 하반기 원 구성

의장 박명석·부의장 정옥주 의원 당선



박명석 의장



정옥주 부의장

진안군의회는 4일, 제23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표결은 교차선출방식으로 진안군의회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 부의장, 운영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순으로 실시했다.

의장단 선거는 박명석(2선,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과반수득표를 얻어 의

이날 선출된 유승열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 의회는 지난 2년간 무주군의회가 쌓아 올렸던 성과 위에 무주군민의 소망과 의회의 열정을 더하여, 더 나아지는 의회, 발전하는 의회,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강연회의'로 만들 수 있도록 성숙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충분한 소통과 공감함을 통해 민생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이 꿈꾸는 행복한 무주 만들기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이해양 부의장은 "선출되신 유승열의장님을 잘 보필하여 열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우리 군민들을 잘 섬기며 군민들의 뜨거운 가슴을 잘 받아가는 소통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장구지계(長久之計)란 말처럼 순간의 효과보다 영원히 계속 될 수 있도록 잘 바라보며 세운 계획으로 다음세대를 생각하는 보다 치열하고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무주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립돌리사



무주 前미문당 대표 장학금 기탁

무주군은 미문인쇄공사 이광오 대표와 前 미문당 성진숙 대표(시인)가 장학금 3백만 원을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에 기탁했다고 전했다.

성진숙 대표는 지난 35년간 무주읍에서 사무용품 유통 사업을 했으며 올해 사업을 정리하면서 인재양성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뜻을 군에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오·성진숙 부부는 "그동안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은 생각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나마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고향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젓소농가 적극 지원

진안군은 올해 FTA와 유류 인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젓소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 소비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에 나섰다.

군은 지난해 낙농시설 현대화·학교우유급식·착유시설 세척제·유제품 홍보행사 등 9,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고 올해는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 향상과 낙농 산업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축사 지붕 개폐시설 및 원유 냉각기를 지원해 축사 환기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한편 착유시설 세척제 440통을 지원해 진안고원 청정 우유 생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 대표 축제 등에도 유제품을 홍보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물놀이 사고 예방 교육

장수군은 4일 장수119안전센터에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과 재난예방 민간예찰단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무주장수방서의 협조로 물놀이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구조장비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실습 교육 등이 실시돼 안전관리요원과 민간예찰단원의 호응이 컸다.

또한 재난예방 민간예찰단원들은 지역 내 물놀이 주요지역의 시설에 대한 예찰활동으로 물놀이 사고예방에 참여해 예찰활동의 폭을 넓혔다.

장수군은 오는 11일부터 8월 21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키로 하고 유관기관과 TF팀을 구성해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물놀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역 내 주요 개소의 물놀이 지역에 대한 안전시설과 장비 설치를 마쳤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홍삼 명품화 세미나 개최

진안군 홍삼 가공업체 및 판매점을 대상으로 진안홍삼 명품화를 위한 마케팅 세미나를 지난 1일 진안홍삼연구소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진안홍삼 가공업체 대표 약 40여명이 참석하여 변철섭 필립경영기술연구원장의 진안홍삼 마케팅 교육과, 국제행정 운영방안 소개 및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김장배 전략산업과장의 진안군 품질인증제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안 설명과 전북 코트라 지원단 수출전문 이병우위원의 진안홍삼 수출을 위한 중국의 이해와 진출 전략, 진안홍삼연구소 개발제품 현황 및 향후 마케팅 전략에 대한 기업지원사업의 순으로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창로 군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진안고원 홍삼의 품질인증제품의 확대를 통하여 진안홍삼 명품화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